

“20여 명의 전문의 협진, 최고의 치료법 찾아갑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폐암다학제진료팀



주 2회씩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다학제 협진 회의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암 사망 원인 질환인 폐암에 대한 진료와 예방, 연구를 담당하는 폐암클리닉은 자연과 조화된 넓은 녹지 공간에 국가 지정 암 센터를 유치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폐암으로 상심하는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한 20여 명의 전문의가 매주 다학제 협의 진료를 통해 빠른

진단 및 환자의 특성에 맞는 최선의 치료 가 시작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병원 개원 이래 주 2회씩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다학제 협진 회의는 현재까지 1,500회 이상 개최되면서 진료뿐 아니라 젊은 의료진에게는 모범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결성된 다학제 대면 진료팀은 폐암클리닉 부장인 오인재 교수를 주축으로 호흡기내과 오형주, 흉부외과 윤주식, 방사선종양학과 김용협 교수와 함께 환자 및 가족들과 직접 대면해 검사 결과와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밀하게 상담해 주며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2022년 전체 폐암 확진 환자 중 평균 30%에서 다학제 대면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암 적정성 평가에서 제시하는 목표치(12.6%) 보다 두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담당 교수들은 정기적인 최신 의학지견 강의 및 토론을 바탕으로 통합진료를 진행하며, 환자별 맞춤형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 다학제 진료팀의 공동연구 성과도 빛나고 있다.

폐암클리닉 부장인 오인재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 인체 자원은행(바이오뱅크)을 활용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 인체 자원은행 사업 심포지엄’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폐암 협진팀은 최근 4년 동안 1천 건 이상의 폐암 환자 인체 자원(조직, 혈액, 기타 검체)을 수집해 연구 기반을 구축했고 다수의 과학기술 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 급 국제 논문을 출판했다. 2023년엔 한국의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환자에게 치료계획을 설명하는 폐암다학제진료팀 오인재 교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폐암다학제진료팀(사진 아래)

항암방사선동시요법 후 durvalumab 면역치료 결과(논문제목: Korean Real-world Data on Unresectable Stage III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Patients Treated with Durvalumab after Chemoradiotherapy: PACIFIC-KR)를 Journal of Thoracic Oncology(영향력지수 20.121)에 출판했다.

또한 오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흉부질환에서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n thoracic

disease)’ 책자 발간에도 참여해 주목받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의 결과가 화순전남대병원 폐암 다학제 협진 결과와의 일치율을 포함한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 결과를 담았다.

오인재 교수는 “앞으로도 폐암 다학제 진료팀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세계 최고의 암병원에 걸맞는 수준 높은 진료 및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